

선자령 등산로



02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그대로! 선자령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선자령(1,157m)은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야트막히 솟아 있는 봉우리로, 남쪽으로는 발왕산, 서쪽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병산이 장쾌하게 이어진다. 날씨만 좋다면 오밀조밀한 강릉 시내와 푸른 동해바다를 볼 수 있으며 대관령일대 고원지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눈이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겨울철 화려한 눈꽃터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등산로 역시 완만하기 때문에 겨울트레킹 코스로 정평이 나았다.

그러나 등산로가 얼어있고 칼바람이 몰아치

기 때문에 아이젠과 방한복은 필수다. 보통 산행은 구 대관령휴게소부터 시작한다. 대관령의 해발 고도가 832m여서 정상까지 300여m 밖에 표고차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리가 왕복 11km에 이르기 때문에 체력안배와 안전산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상대에서 항공통제소까지는 제법 넓은 콘크리트길이며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엉덩이썰매를 즐길 수 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거닐며 오르내림을 반복하다보면 철타미가 솟아 있는 새봉에 이르며, 이곳에서는 대관령 옛길과 강릉 그리고 동해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다시 눈꽃터널을 감상하다보면 어느덧 나무는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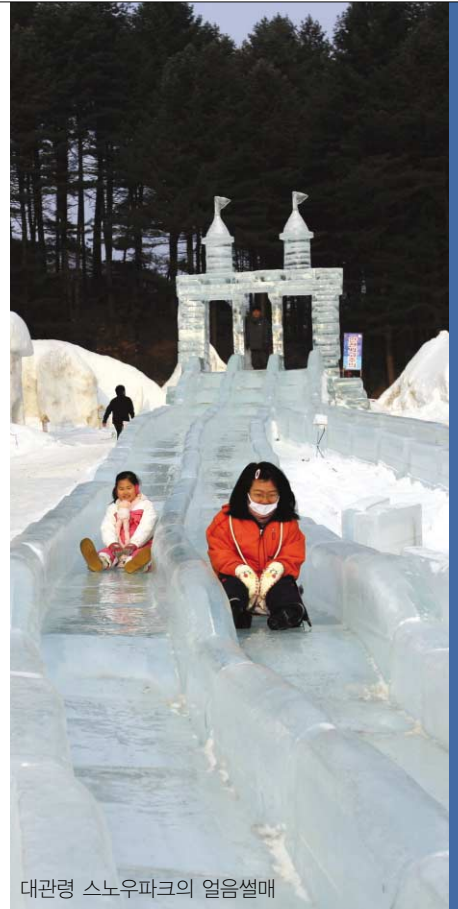
겨울 눈꽃트레킹의 묘미

‘선자령’

겨울철 눈꽃트레킹 코스로 인기있는 선자령(1,157m)은 백두대간 주 능선에 야트막히 솟아 있는 봉우리로 웅장한 백두대간과 강릉시내와 검푸른 동해바다까지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눈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겨울철이면 화려한 눈꽃을 피어내고 있고 등산로 역시 완만하기 때문에 겨울트레킹 코스로 제격이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발전의 원리와 재생에너지 등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벌레, 물자동차 등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체험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들 교육 체험장으로 그만이다.

양떼목장에서는 설원산책과 천연눈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영화 속 배경지로 명성이 높은 삼양대관령목장에서는 웅장한 풍력발전단지를 만날 수 있다. 대관령 스노우파크에서는 눈 놀이와 얼음판 놀이 등 전통놀이체험을 할 수 있으며 양, 소, 토끼 등 동물농장을 갖추고 있다.



대관령 스노우파크의 얼음썰매

데간데없고 대관령목장의 설원이 펼쳐진다.

새봉부터 정상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산행할 수 있다. 사방이 확 트인 정상에 오르면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하산은 대관령삼양목장으로 내려와도 좋고 동부능선을 타고 초마교 코스를 이용해도 좋다. 승용차를 가져왔거나 노약자가 있다면 다시 올라온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최근에 건립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발전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재

생에너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으며 대관령풍력발전 단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전거 패달을 이용한 전기 만들기, 태양전지 벌레, 물자동차, 바람악기, 바람농구 등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체험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대관령휴게소에 있다(문의 : 033-336-5008, 입장료 없음, 월요일 휴관).

양떼목장

연인끼리 왔다면 순백으로 물든 6만2천평의 양떼목장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원을 두르듯 걸어가는 1.2km의 산책로는 40분이면 족하다.



① 대관령에 자리잡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②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인 양떼목장
 ③ 삼양대관령목장의 풍력발전기

특히 설원 한가운데 서 있는 오두막은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으로 사진촬영 포인트이기도 하다. 초원에 예쁜 피아노까지 갖다 놓아 색다른 분위기까지 연출한다.

겨울철이면 오두막 옆 경사면은 천연눈썰매장으로 변신한다. 아이나 어른이나 비료포대 하나만 있으면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요즈음은 양들을 방목하지 않기 때문에 양에게 건초를 주는 체험은 축사에서만 가능하다. 양들을 쓰다듬으면 부드러운 솜이불을 만지는 것 같다(문의 : 033-335-1966, 성인 2,500원/학생 2,000원).

삼양대관령목장

선자령 등반이 부담된다면 삼양대관령목장을

권한다. 차량으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굉음을 울리며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둘러보며 설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삼양대관령목장은 인체 리듬 상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7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규모만도 600만평으로 동양 최대규모의 목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흥행작 치고 삼양목장 신세를 지지 않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영화촬영지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웰컴투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바람의 파이터’, ‘이중간첩’, ‘연애소설’, ‘중독’, ‘별’ 등의 영화와 드라마 ‘가을동화’의 배경 속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며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을 듯싶다. 동절기에는 4시 이전에 들어가서 5시에는 나와야



한다 (문의 : 033-336-0885, 일반 5,000원
초등학생 3,500원).

대관령 스노우파크

횡계읍 내 송천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대관령 스노우파크는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다. 플라스틱 눈썰매, 비료부대 눈썰매, 튜브눈썰매 등 다양한 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얼음놀이장에서는 앉은뱅이썰매, 팽이치기, 빙구, 합지박컬링 등 손발이 뾰뾰 어는 것도 잊은 채 전통 얼음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 놀이장 곳곳에 다양한 눈과 얼음조각이 조성되어 있으며 스노우모빌을 이용한 스노우레프팅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다. 양, 오리, 토끼 등을 관찰하며 직접 먹이를 줄 수 있으며 황태덕장 체험

장도 갖추고 있다. 🐔

여행정보

인터넷 웹사이트

www.yes-pc.net 평창군청 문화관광홈페이지

문의전화 (033) 330-2753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대중교통정보

- 서울방면 :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타고 횡계터미널에서 하차. 선자령까지 택시 이용(하루 12회 운행, 3시간 소요)
- 대구, 원주방면 : 원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타고 횡계터미널에서 하차

자가운전 정보

- 수도권
서울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 경상권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 충청권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진입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